

숲과 숲을 잇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축 연결

산림청, 평창서 홍천 잇는 약 9,300ha 규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연결



▲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강원 특별자치도 평창군 일대 국유림 147헥타르 (이하 ha)와 사유림 23ha 등 총 170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평창에서 홍천으로 이어지는 약 9,300ha 규모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축을 연결했다.

이번 지정은 단순히 보호구역 170ha를 확대한 것을 넘어, 기존에 관리되고 있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하나의 연속된 보호공간으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개별 보호구역을 '점' 또는 '면'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서로 연결된 '축'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생태계

의 건강성과 자연 회복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평창군에 추가 지정된 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7개 유형 중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유형으로, 기존 평창과 홍천 지역에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연결된다.

이에 따라 약 9,300ha의 산림이 연속된 보호공간으로 이어지며, 이는 내장산국립공원(약 8천ha), 북한산국립공원(약 7.7천ha)보다 큰 규모이다.

**▲ 국유림과 사유림이 함께 이
는 산림생태축**
이번 생태축 연결에는 국유림

뿐만 아니라 산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유림 23ha가 함께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해당 사유림 산주는 평창군 용평면 일대에서 산림에 대한 인위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연스스로 생태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방식의 산림보전 활동을 지속해 왔다. 해당 지역 생태조사에서는 할미밀망 등 다양한 희귀·특산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례는 국가가 보호가치가 높은 국유림을 지정·관리하는 방식에 자발적인 민간의 참여를 더해 국가의 보호지역과

생태축을 국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간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산림의 26%인 국유림의 보호지역 지정 한계를 극복해 전체 산림의 66%인 사유림까지 보호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 보호지역을 넓히는 것에서
'잘 연결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의 면적뿐만 아니라 보호지역간 연결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들이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는 2030년까지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는 30×30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보호지역의 면적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적으로 대표성이 있고 '잘 연결된(well-connected)' 보호·보전지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생태적 가치와 기존 보호지역과의 연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관리하고, 백두대간 등 주요 산림생태축과 연계해 보호지역의 연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산불정보 가시화시스템’으로 산불 대응 강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상황 다각도 분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농림위성의 산불 대응 지원 활용을 확대하고 단일 위성관측의 시·공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중위성 융합 산불정보 가시화시스템(가칭)'을 시범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은 농림위성의 산불피해분석 정보와 천리안위성(GK2A), 수오미 NPP(Suomi NPP) 위성 등의 화점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위성별도 분산되어 있던 산불정보를 시간대별로 표출함

으로써, 산불 상황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현장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7월 발사된 농림위성은 산불 발생 이후 촬영된 영상을 활용해 산불 피해 영향권과 피해강도(심·중·경) 등의 상세 피해 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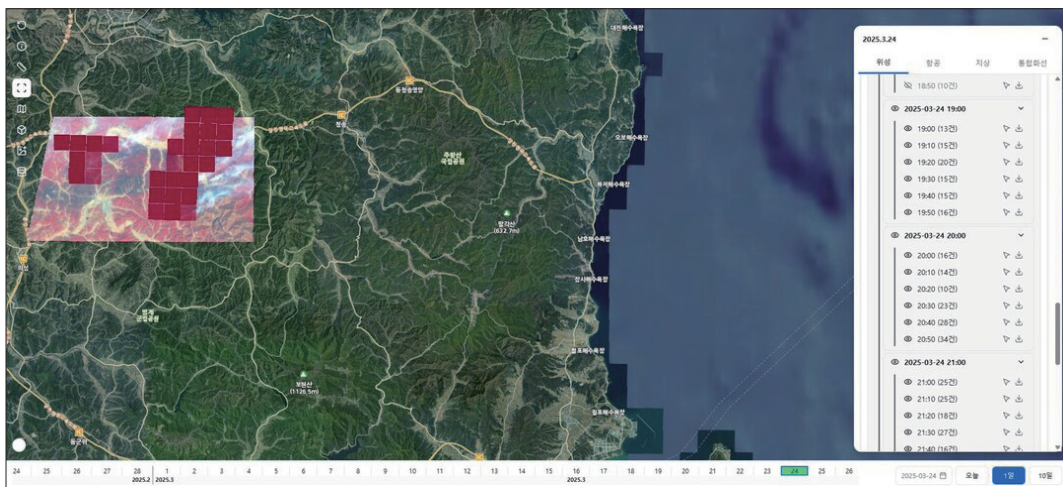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농림위성 분석결과를 시스템과 연계해, 다중위성 화점 정보와 함께 산불 발생부터 피해 현황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농림위성 실영상 기반 산불정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검증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봄철 산불 대응 현장에 해당 시스템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농림위성과 다중위성 정보를 연계해 관측 공백을 줄이고, 위성 정보가 실제 산불 대응 현장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산불정보 가시화시스템 시범운영 사진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산림청, 산림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맞손

피지컬 AI·화장품 등 융복합 분야 확장

산림청(청장 박은식)이 서울·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임업진흥원과 손잡고 산림·임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산림 산업 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산림·임업 분야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과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 모집은 기존 산림 분야 오픈이노베이션에서 다루던 스마트 임업, 산림재난 대응,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영역을 넘어 '로봇, 드론 등 현장 적용형 피지컬AI', '화장품(K-뷰티)'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나 이마켓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전문인력 멘토링, 실증 인프라 지원, 사업화 연계 활성화 지원 등 다각도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건섭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장은 "이번 사업은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산림 산업이 가진 유망한 미래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기



▲산림청 제공

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남부지방산림청 '찾아가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실' 운영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수)은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에 대응하고,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 및 울릉국유림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자문관실을 올해부터는 관할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이에, 지난 8월에는 울릉국유림사업소, 영덕국유림관리소 등 4개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9월 8일에는 양산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였다.

이번 자문관실 운영은 기존의 유선 및 이메일 위주 자문 방식에서 벗어나 자문관이 소속기관과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대면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자문 내용으로는 ▲미

결 사건 및 착수 전 사건에 대한 수사 방향 제언, ▲사건 송치 전 서류 검토·보완을 통한

수사서류 품질 제고, ▲수사 현장의 업무 애로사항 청취 및 솔루션 제공 등이다.



▲특사경 자문사진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행복한농촌, 함께하는 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7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